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직원 워크숍 가져

제9회 전국대회 세부계획 논의...차질 없이 진행 다짐

지난 2일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관련 임직원 워크숍이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 예술농원에서 1박 2일간 열렸다. 이 워크숍에서 전국대회관련 주제와 각종 행사가 결정됐다.

이번 전국대회 주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농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명감을 부여하는 취지로 “농업을 우리 손으로, 농촌을 우리 가슴으로”를 채택했다.

8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열리는 전국대회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학술행사와 전시행사,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농업인, 가족행사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중앙연합회 서정의 회장은 “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도연합회는 각종 행사의 세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전국대회가 이 자리가 농촌의 발전을 모색하며 전국농업경영인과 가족 간의 따뜻한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하연합회 소식



### 한농연 충북연합회, 농협개혁 촉구

한국농업경영인 충북연합회 회원 300여명은 13일 청주시 상당구 농협 충북지역본부 앞에서 농민 조합원의 주권회복을 위한 선포식'을 갖고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농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농협은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봉사

보다는 신용사업과 수익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포식을 계기로 농민이 주인 되는 협동조합을 위해 농협개혁운동을 벌어나갈 것”이라며 “조합장의 비상임제 전환, 도 본부장 직접 선출, 조합 예.결산 상세내역 공개 등 11개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 이경해 열사 추모기금 마련 - 전북농업경영인 속속 동참

이경해 열사 기념관 건립 모금 운동에 전북농업경영인들이 속속 동참하고 나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 추모사업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 도·기초의원,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관련 기관·단체장, 농관련회사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등 관심을 표명, 주최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정읍시연합회(회장 박운성)에 이어 지난 6일 무주군연합회(회장 최재홍)가 각각 관내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일일차집을 열어, 열사를 추모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했다.

또 7일에는 완주군연합회(회장 전택군)가 완주군청 앞마당에서 익산시연합회(회장 유지원)는 농업경영인회관에서 각각 일일차집·일일주점 등을 열고 모금운동 대열에 합류했다.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번 기금 마련에는 지난달 11일 전북도연합회가 첫 테이프를 끊는 등 8일 현재 10개 시·군이 행사를 마쳤다.

한편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나머지 4개 시·군도 이 달 안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농업 희생 위한 국회청원운동' 선포

한농연 제주도연합회와 전농 제주도연맹 등 도내 15개 농업단체로 구성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인선)가 쌀개방 반대와 제주농업 희생을 위한 국회청원운동에 나섰다.

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회견을 갖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업 개방 10년을 맞아 농업·농촌은 몰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장래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청원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날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 반대와 식량자급 목표치 법제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특별법 내 감귤 직접피해품목 포함 △밭작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재해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쌀사랑 국토순례 막내려

지난 5월 24일 전남 광양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 쌀을 지키자' 고 외쳤던 한국여성농업인(이하 한여농) 국토순례단이 지난달 24일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우리쌀 소비 촉진운동을 벌인 한여농 국토순례단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어울 한마당'을 끝으로 2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는 자리였다.

김인호 한여농중앙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농업의 위기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쌀을 비롯한 농업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여성농업인이 앞장서서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회장,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 등 내빈, 회원 및 소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어울한마당을 펼쳤으며 전국에서 올라온 60여개 브랜드의 우수한 쌀 전시회와 쌀음식 시식회 및 전시회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가졌다.

한편, 국토순례단은 24일간의 일정동안 전국 각지에서 가두행진을 통해 현 농업의 위기상황과 우리쌀의 중요성을 알리고 3만 여명의 소비자로부터 '우리쌀 지키기' 서명을 받아 우리쌀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 낙농육우협회, 토론회 및 보고대회 개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15일 인바이오넷 대강당에서 400여 낙농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낙농현안 토론회 및 보고대회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축사를 겸한 연대사에서 혼합분유 수입에 대한 대응활동을 비롯한 우유수급 문제, 축산업 등록제 등 현안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해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부 낙농현안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로 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 이만재 회장이 '우리낙농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40여년의 우리나라 낙농에 대해 소개했다.

2주제는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가 '원유가격의 결정의 문제와 우유소비 촉진'의 주제로 발표하면서, 원유생산비 조서 및 원유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청년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2부 낙농현안 보고대회에서는 협회 청년분과위 김태섭 위원장

이 축산업 등록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섭 청년분과위원장은 낭독문을 통해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등록제 2010년까지 유예, 영업정지 조치 등 독소조항 삭제 ▲원유가 현실화 조치, 원유가격의 시장경제 도입 방침 철폐와 원유생산비 공정성 확보 ▲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의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 기준원유량 즉각 상향조정 ▲ 농림부는 국산원유의 제품별 사용실적을 즉각 조사하여 공정거래 위반 여부 공개, 유업체는 혼합분유 수입중단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낙농가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 전국농민대행진 제주서 출정식 가져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파병 저지’를 위한 전국 농민 대행진단이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출정식을 열고 전국을 누비는 대행진에 들어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과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등 30여명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기점으로 서로는 전남, 전북, 충남, 경기, 동으로는 경남, 경북, 충청, 강원을 거쳐 서울까지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파병 저지’를 위한 전국 농민 대행진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선언했다.

농민대행진단은 “현재 한국의 농업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농민 대행진은 쌀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 대투쟁의 불길을 전국화하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방침을 철회시키려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세력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쌀을 지키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며 “이는 400만 농민들의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

### 남북농민통일대회 성황리에 열려

한농연전남도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금강산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2박 3일간의 남북농민통일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남북농민간의 대규모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농연전남도연합회 회원 28명과 전국농민회총연맹 360명, 한국가톨릭농민회 60여명 등 농민단체 회원 총 640여명이 참가했다. 북측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와 지방 도 농근맹소속 400여명이 참가해 남측방문단과 함께 민속놀이와 공연, 공동선언문 채택 등의 일정을 가졌다.

남북은 대회 둘째날인 지난달 27일 폐막식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자주적통일 실현’ 과 민족공조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 ▲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농민단체들간 연대연합의 강화 ▲ 민족농업발전과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한농연**